

#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미술관서 만난다

전북도립미술관, 'JMA 필름' 5월 프로그램으로 협업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와의 협업을 통해 영화제 상영작 두 편을 미술관에서 다시 선보이는 특별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일 폐막한 영화제의 열기를 이어가며 도민들에게 영화와 미술이 교차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 상영은 16일에 진행된다. 상영작은 이레네 바르톨로메(Irene BARTOLOME) 감독의 '또 다른 여름의 꿈'(70분, 12세 이상 관람가)이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선정작이었던 이 작품은 도시의 폐허 속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인간과 물리적 공간 사이의 관계 및 죽음 앞에서도 이어지는 도시의 회복력을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담고 있다. 작품은 재난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장소에 지닌 기억이 어떻게 공간 속에 머무는지를 관찰한다. 특히 거리와 건물, 실내 공간을 하나의 아카이브처럼 정밀하게 담아내며, 우리가 머무는 환경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각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특히 16일 상영 직후에는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조영각 프로듀서가 게스트로 참여하며, 전주국제영화제 김효정 프로그래머가

모데레이터를 맡았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방향성, 단일 상영한 작품의 영화적 문법과 예술적 가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다른 여름의 꿈'은 23일에 한 차례 더 상영된다. 이어 30일과 6월 6일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초청작이었던 '입탑의 모험'(97분, 전체관람가)을 상영한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인 팔피 죄르지(PALFI György)는 '입탑의 모험'을 통해 운명을 거부하는 한 생명체의 모험을 그리면서도, 가여운 인간들의 삶을 상대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다운 영상미, 최소화된 대사 등 어린이가 관람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한편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 200명까지 관람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동학농민혁명 132년의 기억' 전시

부안 백산면사무소 로비서 내달 30일까지 개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는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 132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부안군 백산면사무소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역사의 흔적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

되었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시 장소인 백산면은 과거 동학군이 호남 청의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세를 떨쳤던 '백산 봉기'의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전시 공간은 부안미술 화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자기 공예품과 회화 작품들로 다채롭게 채워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학농민혁명 132년의 기억' 특별 전시

## 익산글로벌문화관 "모국 전통 입고 무대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제4회 글로벌 세계의상 경연 대회' 16일 개최

익산에서 외국인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16일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제4회 글로벌 세계의상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익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통의상을 선보이고, 전통 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문화를 소개한다. 경연 우수 참가팀에게는 익산글로벌문화관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전북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로 2023년부터 세계의상 경연 대회를 진행해 외국인주민 간 화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글로벌문화관 공식 누리집(global.iksan.go.kr) 또는 전화(063-859-520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문화배달' 참여 예술가 모집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임준)은 군산시 관내 곳곳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2026 군산문화배달'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 군산문화배달은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위해 주민생활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관내 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기반을 둔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전문 예술가 및 단체다.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공연 시간과 참여 인원수에 따라 회당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연비가 지원된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예술가 풀(pool)을 구축한 뒤, 시민 수요처와의 매칭을 거쳐 공연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재단 사무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9)

### 장구소리 들리지 않아?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이전까지 보름 정도가 지나면 어김없이 달걀꾸러미가 문 밑에 놓여 있었다. 명희는 저도 모르게 또 다가올 보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보름이 다가왔고 이틀이 지났지만 달걀꾸러미는 문 밑에 놓여 있지 않았고 문동이는 방문하지 않았다.

명희는 다시 보름을 기다렸지만 역시 문동이는 오지 않았다. 문동이를 놀라게 해서 쫓아버린 순옥이 미워졌다.

"언니 요새 왜 그래요?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생상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새벽이면 문쪽으로 귀를 세우는 명희를 순옥은 그냥 넘겨보지 않았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누구를 꼭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문동이를……"

"아니, 아니야."

명희는 고개를 급히 저었지만 얼굴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 뒤로 문 밑에 더 이상 달걀도 놓여 있지 않았고 문동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신월리 신동마을에서 굿을 해달라고 명희를 청했다. 명희는 신월리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달같은 남준의 마음이었다. 명희를 향한 마음.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뒤를 바라고 달걀을 전한 것은 아니다. 명희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전해지길 바라는 순수한 뜻이었다.

남준이 순옥에게 들켰으로써 그 순수한 마음이 깨진 듯하여 더 이상 마음을 전달할 수 없었다. 발각된 후에도 달걀을 전달하는 것은 남준이 명희에게 향하는 마음이외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서 내내 갈등하고 있었다.

신동은 남준의 외가가 있는 마을이다. 신동 옆에 동해원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은 나환자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문동이 달걀을 가져왔다는 걸 알고부터 남준이 그 문동이 아닐까 싶었고 나환자라던 동해원에 있을 수 있었다.

명희는 순옥의 도움을 받아 신월리 신동마을로 갔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혹시 문동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굿을 청하였다고 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굿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명희는 독경을 암송하면서 직접 징과 팽과리를 쳤고 순옥은 옆에서 장구를 쳤다. 명희는 남준을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독경을 했다.

독경소리는 멀리멀리 퍼졌고 그 소리는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쯤 떨어진 동해원 마을까지 들렸는데 소리는 작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릴 정도였다.

초저녁부터 저 멀리에서 가물거물 들려오는 작은 독경소리가 남준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달걀을 가져다주다 순옥에게 발각된 후 명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남준은 아득하게 들려오는 저 독경은 명희의 목청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고창에 무당이 한둘이겠는가.

남준은 구석에 세워놓은 장구를 내다가 앞에 놓았다. 어머니 신동댁이 독경을 하면 남준은 옆에서 장구를 쳤었다. 모든 게 평온했다면 당골래인 명희가 독경을 하면 남준이 옆에서 장구를 치며 추임새를 넣었을 것이다.

남준은 장구를 쳤다. 배웠던 모든 가락을 쳤다.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모리, 휘모리, 굿거리 등 남준이 배운 모든 가락을 연습하듯 쳤다. 온몸이 땀에 젖는 것도 모르고 온통 장구와 하나가 되어 가락이 푹 빠졌다.

명희는 자정 무렵 잠시 휴식을 취했다. "장구소리 들리지 않아?"

명희는 귀를 세우며 순옥에게 말했다. 순옥도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귀를 세웠지만 들리지 않는지 명희를 바라봤다.

"나는 안 들리는데요."

명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 좀 나가자."

순옥은 명희를 손을 잡아 밖으로 인도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총총히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